

주현절 제9주일/2019년 3월 3일(일)/주님 변모(變貌)주일

구약: 출애굽기 34,29-32

서신: 고린도후서 3,12-17

복음: 누가복음 9,37-43a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 사이에 있는 ‘주님 변모주일’(Transfiguration Sunday)입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이 있는 후(눅 9,18-20),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9,23-24).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졸다가 깨어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구름이 일어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휩쌌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지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님만이 거기에 계셨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모’(Transfiguration),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나는 변화는 종교사에서 낯설지 않은 거룩한 신적 존재의 임재 현상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변모와 구름 속에서 들린 목소리,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홀로 남은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예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사장과 예언자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것이지요.

2.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두 증거 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세 자신은 그런 변화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출 34,29). 모세는 시내 산에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명했고,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가 다시 수건을 벗을 때는 주님과 함께 말할 때였고, 주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출 34,34-35).

여기서 수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덮다’를 뜻했습니다. 사제가 얼굴에 가면을 쓰는 행위는 구약성경 시대의 주변 세계, 특별히 이집트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제가 이런 가면을 쓰는 행위는 그가 섬기는 신적 존재의 얼굴을 씌으로써 그 신적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쓴 가면의 외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변모 이야기는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과 사제의 가면이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유일하게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모세는 그의 얼굴을 가려야 했다는 것이 모세 변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¹⁾ 모세

1) 마르틴 노트, 출애굽기, 한국신학연구소, 1981, 319 참조.

얼굴의 광채는 모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백성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 ‘문자와 영’을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과 ‘길이 남을 것’으로 대립시키면서(고후 3,11), 모세의 변모와 더불어 얼굴을 가린 이야기를 구약성경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구약성경은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이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감안한 행위라고 하는데, 바울은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다고 주장합니다(고전 3,13). 바울은 모세로 대변되는 옛 계약, 곧 율법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새 계약, 곧 복음의 종교와 다르다고 합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는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지만, 다시 말해 ‘완고한 생각’(고후 3,14)에 덮여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곧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영, 곧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고(고후 3,6),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고후 3,17).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롬 6,18-22),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롬 8,2)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자유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적 자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자유, 그 자유의 중심에 오직 자기 자신만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소비될 수 있는 시장의 자유’입니다.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자유가 성취된다는 생각은 사실 욕망충족의 가장 현실적인 도구인 돈을 쫓는 맘몬주의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돈은 자유의 근원이자 목적이 된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과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이 뻔뻔스러운 무례함과 오만함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보수와 진보, 동과 서, 남과 북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2)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고전 9,19)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섬김을 받는 자유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침해되는 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에게 은혜로 주어진 자유는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독점을 비신화화 합니다. 은혜로서의 자유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권력의 자유’를 폭로하고, 소위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돈의 자유’를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는 돈의 힘에 의해 독점된 자유의 오만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자연을 파괴하는 무책임성에 저항하게 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의 인간적 능력이나 소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유가 인간 자신의 능력에 의해 - 그것이 지적인 것이건, 물리적인 것이건, 경제적인 것이건, 정치적인 것이건 간에 -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자아실현’ 혹은 ‘자기관철’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자유의 기준은 언제나 개인이지 공동체가 아니고, 사적 이익이지 공공성이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힘 있는 자를 정당화하는 도구이며 현상유지(status quo)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섬김을 받기위한 자유’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자유’로 이해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한 자유’는 인간에 대한 이해나 인간관계를 모두 자본화하고,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오직 소유관계에서만 보게 합니다. 그 자유의 중심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혹은 자기 조직의 이기심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 자유는 ‘섬김의 자유’이지 지배를 위한 자유가 아

닙니다. 스스로 종이 된 이들의 자유, 섬기는 자들의 자유는 자발적으로 절제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이웃’과 ‘타인’인 것입니다(벧전 2,16; 갈 5,13).

4. 그리고 이런 자유는 오직 영이신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전승되고 있는 귀신축출 이야기도 주님의 영과 자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신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에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가는 소년에게 악한 귀신, 곧 ‘병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막 9,25), 마태는 ‘간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하지만(마 17,15), 누가는 단지 ‘귀신이 소년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눅 9,39).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서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자 소년이 낮게 되었다고 합니다(눅 9,40-42).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년을 치유하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고(마 17,20), 마가는 귀신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그 원인으로 제시합니다(막 9,24). 다시 말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치유와 믿음의 관계가 강조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받았음에도’(눅 9,1-2),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과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눅 9,43)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²⁾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이 귀신들린 소년의 치유이야기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모하신 예수님 이야기(눅 9,28-36) 바로 뒤에 배치하면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는 이 두 사건이 일어난 날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는 하늘의 영광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고통에 대한 것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³⁾

산 위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곳에 초막 셋을

2) 김득중, 누가복음(I), 대한기독교서회, 1993, 493 참조.

3) 김득중, 누가복음(I), 대한기독교서회, 1993, 494 참조.

지어 머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 머무는 것, 곧 종교적 신비 체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악한 귀신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셔야 했던 것이지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눅 9,41)에게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한 세대(신 32,5),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세대’(신 32,20),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세대’(행 13,10)에게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눅 9,42-43).

5. 예수님은 변화산 정상에 초막을 짓고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상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힘과 돈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눅 9,39), ‘병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막 9,25), 어지러운 세상에서 귀 막고, 입 막고, 눈 감고 사는 것이 그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악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선(神仙)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人子)이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눅 9,35)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땅히 그 분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구름 속이 아니라 먼지 속이, 천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귀신이 있는 곳이, 예속의 영이 아니라 자유의 영이 계신 곳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설교 후 기도>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신 주님,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죄와 죽음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시옵소서(고후 3,18).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고후 3,3),
‘병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믿음과 기도로 치유하게 하시옵소서.’(마 17,20: 막 9,2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이니’(역대지상 29,14),
은혜의 주님, 바친 손길 마다 강복하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주님께 바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게 하시고(고후 8,12),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고후 9,7).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할 때마다(빌 4,6),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신명기 28,1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